

KOSDAQ | 자본재

삼표시멘트 (038500)

본업은 회복, 성수동 프리미엄은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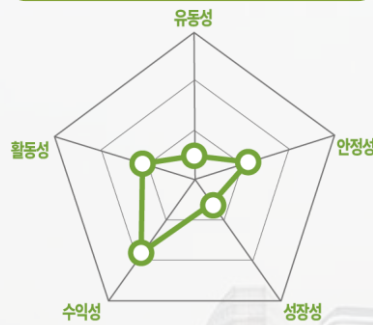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26년 저점을 통과한 뒤 2027년부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전망. 주택 착공 반등과 SOC 예산 확대가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 증가 시 설비 가동률 상승과 고정비 부담 완화로 시멘트 업체의 이익 개선 폭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출하량 회복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 개선 폭도 확대될 전망
- 동사는 순환연료 대체율 확대와 폐열발전 증설을 통해 유연탄·전력비를 구조적으로 절감하고, 폐기를 반입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확보. 또한 삼표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성수동 개발에 따른 그룹 가치 재평가의 간접 수혜를 받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직접 귀속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인허가·규제 및 자금조달 관련 뉴스에 따른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7,074억원(+4.5% YoY), 영업이익 877억원(+14.5% YoY), 영업이익률 12.4%(+1.1%p)를 기록할 전망. 주거용 착공 증가와 하반기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착공 확대에 따른 출하량 회복, 대체연료 투입 확대에 따른 원가 절감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유연탄 가격 상승과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안은 부담요인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자본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자본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삼표시멘트 (038500)

Analyst 오정하 jh.oh@kirs.or.kr
RA 권지승 rnjswlmd32@kirs.or.kr

KOSDAQ

자본재

건설경기 저점 통과, 2027년 수요 반등 기대

국내 시멘트 수요는 주택 착공 부진과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6년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됨. 2026년 국가 SOC 예산은 27.7조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 중. 착공 이후 기초·골조 공정에서 시멘트 투입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와 착공 증가분이 실제 출하량에 반영되는 2027년부터 수요 반등이 나타날 전망. 출하량 회복 시 설비 가동률 상승과 고정비 부담 완화로 동사의 이익 개선 폭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가능성

원가 절감과 성수동 개발 프리미엄

동사는 대체연료·대체원료 투입 확대와 폐열발전 증설을 통해 구조적인 원가 절감을 추진 중. 대체연료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5년 42%로 상승했으며, 유연탄 사용량 감소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익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연간 연료비는 2023년 대비 2025년 47% 감소. 한편 최근 주가에는 성수동 복합개발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판단. 동사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6년 예상 P/B 1.0배로 경쟁사 0.3~0.6배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인허가 조건, 사업 일정 및 자금조달 방식 등 성수동 개발 관련 작은 변화에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실적은 출하량 회복과 원가 절감이 견인

2026년 연간 매출액은 7,074억원(YoY +4.5%), 영업이익은 877억원(YoY +14.5%), 영업이익률은 12.4%를 기록할 전망. 주거용 건축 착공면적 증가와 신규 분양 확대에 더해, 하반기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공업용·상업용 건축 착공이 늘어나며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임. 출하량 회복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고정비 부담 완화, 대체연료 확대에 따른 원가 절감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유연탄 가격 상승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불안은 부담 요인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7,211	8,237	7,908	6,769	7,074
YoY(%)	26.7	14.2	-4.0	-14.4	4.5
영업이익(억원)	711	847	1,039	766	877
OP 마진(%)	9.9	10.3	13.1	11.3	12.4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02	338	661	408	470
EPS(원)	280	313	613	378	435
YoY(%)	47.7	12.0	95.5	-38.3	15.1
PER(배)	12.0	10.0	4.8	13.2	18.1
PSR(배)	0.5	0.4	0.4	0.8	1.2
EV/EBITDA(배)	6.5	5.5	4.3	6.1	7.4
PBR(배)	0.5	0.5	0.4	0.7	1.0
ROE(%)	4.5	4.9	9.0	5.3	5.9
배당수익률(%)	2.7	3.2	3.7	2.4	1.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5)	7870원
52주 최고가	20,200원
52주 최저가	2,950원
KOSDAQ (8/5)	799.59p
자본금	540억원
시가총액	8,493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08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8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30억원
외국인지분율	4.79%
주요주주	삼표산업 외 5인 68.3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5	-57.3	126.5
상대주가	1.5	-40.8	126.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된 기업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삼척 기반 연안형 종합 시멘트사

삼표시멘트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1957년 국내 최초의 시멘트 공장을 설립한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 동양메이저(주)의 시멘트 부문을 분리하면서 동양시멘트(주)로 법인이 독립해,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15년 삼표그룹이 동양시멘트(주)를 인수했고, 2017년 3월 사명을 (주)삼표시멘트로 변경했다.

2021년 8월에는 100% 자회사인 삼표레미콘(주)을 설립하고 전국 5개의 공장을 양수해서 레미콘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2026년 1월 남광주 공장을 추가 인수해서 현재의 6개 공장 체제를 갖췄다. 국내 시멘트사는 석회석 단지 위치에 따라 내륙사(단양, 제천, 영월)와 연안사(삼척, 동해, 옥계)로 나뉘는데, 항만을 낀 연안사는 해상 운송과 수출이 가능하다. 삼표시멘트는 삼척에 소성공장을 둔 연안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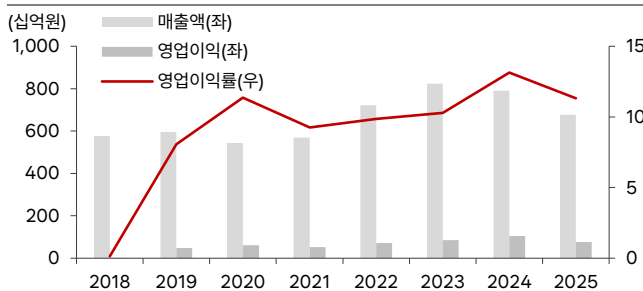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769억원(YoY -14.4%), 영업이익 766억원(YoY -26.3%), 영업이익률 11.3%(YoY -1.8%pt)를 기록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연결조정전 기준으로 시멘트 7,628억원(YoY -12.9%), 레미콘 473억원(YoY -17.5%)로 구성된다.

주요 연혁

1950 ~ 1980	1990 ~ 2000	2010 ~
1957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 설립 1959 1차 시설 확장 공사 완공 1961 2차 증설 공사 완공 1967 3차 증설 공사 완공 1975 4차 증설 공사 완공 1976 기업 공개, 부산공장 준공 1978 5차 시설 확장 공사 완공 1979 동해공장 준공 1980 국내 최초 소성용 연료 대체 병커 C 유 → 유연탄 1981 국내 최초 소성용 연료 대체 관련 31문화상 수상 1985 상호 변경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 → 동양시멘트주식회사 6차 시설 확장 공사 완공 광양공장, 창원공장, 성북공장 준공	1990 7차 증설 공사 완공 1993 8차 증설 공사 완공 1995 시멘트 누적 생산량 1억톤 달성 광양 슬래그시멘트 공장 준공 1997 업계 최초로 전국품질경영대회 설비 관리 부문 대통령상 수상 1998 최우수 기업가치상 수상, 기업 혁신 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1999 경제정의 기업상 수상 2000 경총 주관 보람의일터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2002 동양메이저(주) 시멘트 부문을 분리, 동양시멘트(주)로 법인 독립 2006 강원도 삼척 일대 신광산 개발 허가 취득 2007 광양슬래그 공장, OPC SILO 증설 공사 (13,000 톤 규모)	2010 KOSDAQ 상장 2011 동양시멘트(주) 본사 삼척 이전 2015 9월 삼표그룹 계열사 편입 2017 3월 상호 변경 동양시멘트(주) → (주)삼표시멘트 2020 시멘트 누적 생산량 3억톤 달성 202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ISO) 2022 ESG경영 체제 선포(ESG 위원회 신설) 2023 석회석 상옥시설 설치 2024 '23 한국 ESG 기준 ESG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2025 환경성적표지인증 획득(SC, 저발열시멘트) '24 한국의 소비자에게 친화적시멘트 대상 수상 '25 한국표준협회 우수회원사' 선정, 협회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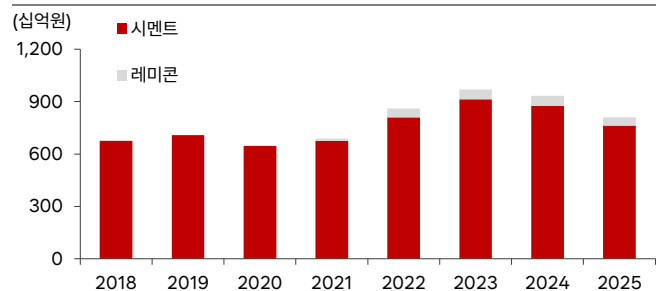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연결조정 제외

주요 주주 및 자회사

정도원 회장 지배 하 승계 기반 구축

2026년 1분기 말 기준 삼표시멘트의 최대주주는 삼표산업으로 지분 54.68%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와 에스피에스엔에이가 각각 4.75%, 3.89%를 보유하고 있다. 정도원 회장과 아들 정대현 수석부회장의 직접 보유 지분은 각각 3.44%, 1.31%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68.32%다. 2026년 4월 1일 에스피네이처가 에스피에스엔에이를 흡수합병하면서 에스피에스엔에이가 보유하던 삼표시멘트 지분이 에스피네이처로 승계됐으며, 이에 따라 에스피네이처의 지분율은 8.64%로 상승했다. 삼표시멘트는 2015년 삼표그룹에 편입된 이후 삼표산업을 중심으로 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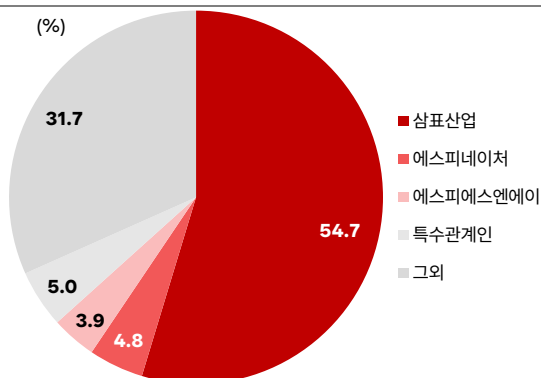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삼표산업이 있다. 삼표시멘트는 삼표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이다. 과거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했던 (주)삼표는 2023년 7월 삼표산업에 흡수합병돼 소멸했으며, 합병 이후 삼표산업이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삼표산업의 주요 주주는 정도원 회장 30.33%, 에스피네이처 18.23%, 정대현 수석부회장 5.22%이며, 자기주식 비중은 44.73%다.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정도원 회장의 의결권 지분율은 약 54.9%로, 현재 정도원 회장이 삼표그룹과 삼표시멘트의 최종 지배주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대현 수석부회장은 에스피네이처 지분 71.9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수석부회장의 삼표산업 직접 지분율은 5.22%이며, 에스피네이처 보유 지분 18.23%를 포함한 정 수석부회장 측 지분은 23.45%다. 다만 에스피네이처 지분율을 반영한 정 수석부회장의 경제적 직·간접 지분율은 약 18.34%로 추산된다. 정 수석부회장은 에스피네이처를 통해 삼표산업에 상당한 의결권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도원 회장 보유 지분의 이전과 삼표산업 자기주식의 처리 방식은 승계 경로와 정 수석부회장의 지배력 확대 수준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원재료·물류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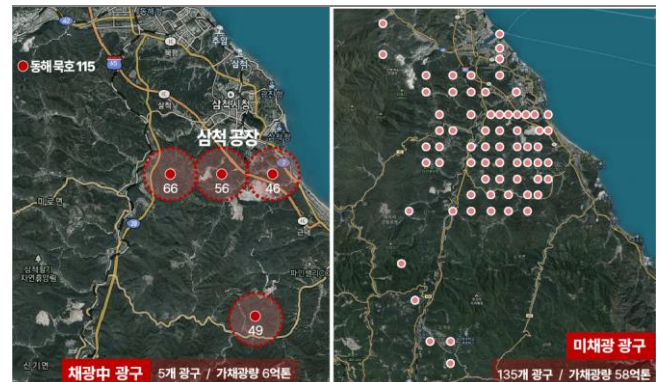
삼표시멘트는 총 6개의 연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자회사로는 시멘트와 레미콘의 운송·유통을 담당하는 삼표레미콘, 삼표해운, 삼표에스엔씨와 원재료인 석회석 채굴을 담당하는 삼표자원개발 등이 있다. 자회사를 통해 원재료 조달부터 해상·육상 운송, 레미콘 공급까지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고 있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1Q26 기준 주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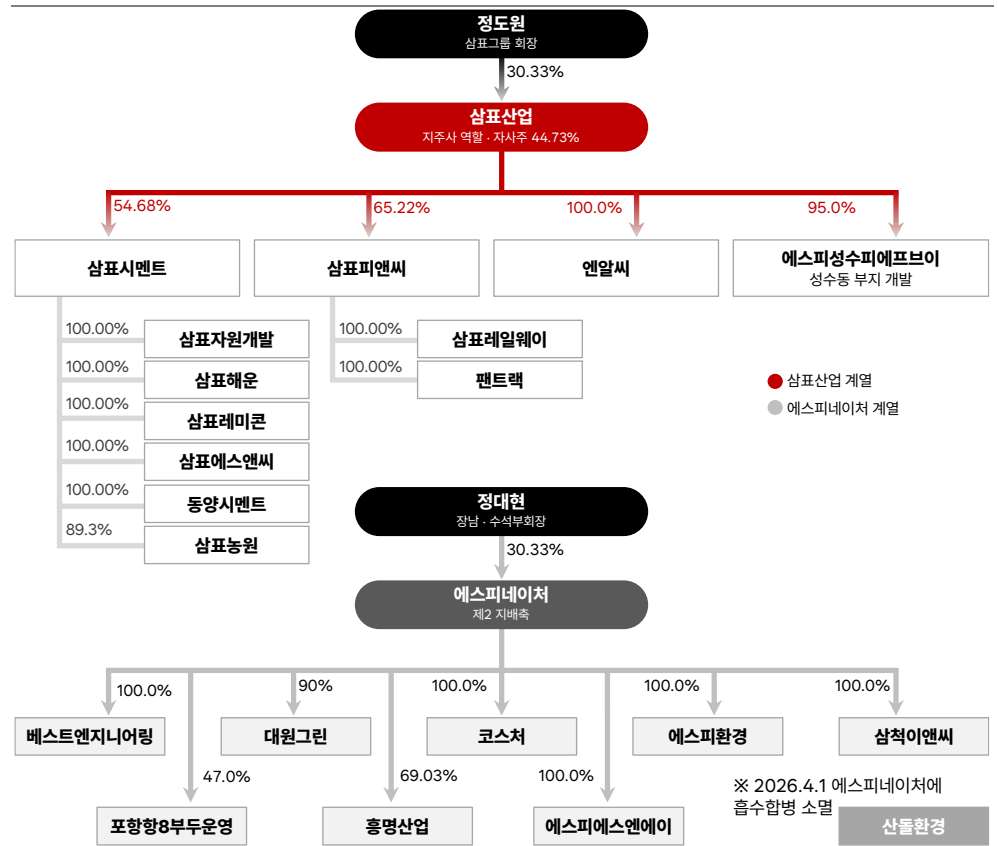
자료: 다트천자공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표시멘트 광산 현황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Q26 기준 삼표그룹 지배구조도



주: 1) 삼표산업 지분율은 상환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기준, 2) 에스피에스엔에이는 2026년 4월 1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 소멸
자료: 닥트전자공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시멘트: 국내 최대 단일공장 기반
핵심 사업**

2025년 기준 삼표시멘트의 연결조정전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시멘트 94.2%, 레미콘 5.8%로 시멘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멘트 부문에서는 포틀랜드시멘트와 슬래그시멘트를 주로 생산하며, 2024년 생산량 기준 비중은 각각 87%, 13%로 포틀랜드시멘트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주력 생산기지인 삼척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포틀랜드시멘트는 석회석 등을 고온에서 소성해 만든 클링커에 석고를 혼합한 가장 일반적인 시멘트다. 초기 강도 발현이 빠르고 범용성이 높아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 도로 등 대부분의 건축·토목공사에 사용된다. 슬래그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에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합한 제품이다. 초기 강도는 포틀랜드시멘트보다 다소 낮지만 장기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화열이 낮아 균열 발생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이에 따라 포틀랜드시멘트는 일반 건축물과 주택, 도로 등 대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된다. 슬래그시멘트는 항만과 교량, 댐, 하수처리시설 등 염해와 화학적 침식, 수화열에 대한 저항성이 중요한 구조물에 주로 사용된다.

삼표시멘트는 삼척 일대에 보유한 135개 광구 중 가채광량 약 6억톤 규모의 5개 광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약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핵심 원재료인 석회석을 공장 인근 광산에서 직접 조달해 원재료 수급 안정성과 운송 효율

레미콘: 수직계열화 기반

다운스트림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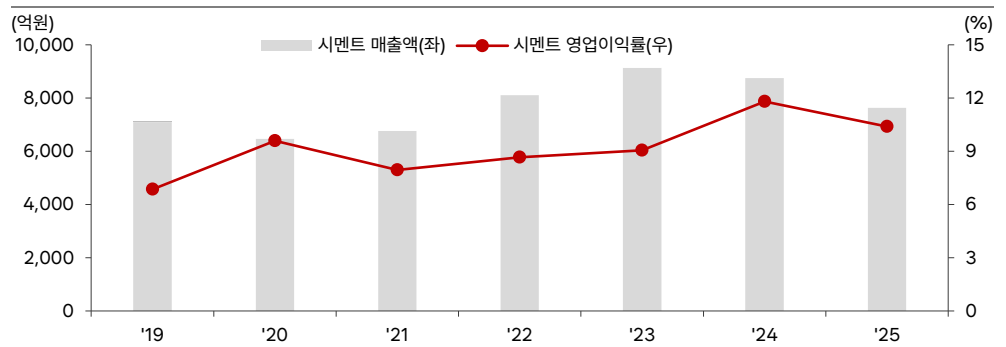
율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삼척공장 내 전용 항만을 활용해 수도권과 남부권 출하기지로 시멘트를 운송하고 있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모래·자갈 등의 골재, 물과 혼화재를 공장에서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뒤 믹서트럭을 통해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제품이다. 'Ready Mixed Concrete'의 줄인 말로 '미리 섞은 콘크리트'라는 의미다. 생산 후 통상 9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므로 공장과 건설현장 간 거리가 중요하며, 공장 인근 건축·토목 수요에 의존하는 지역형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택 및 건축물 착공과 SOC 투자에 민감하고, 공사가 활발한 봄과 가을은 성수기인 반면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성도 나타난다.

삼표시멘트는 2021년 100% 자회사인 삼표레미콘을 설립한 뒤 여주·당진·아산·대전·군산 등 5개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며 사업에 진출했다. 시멘트는 삼표시멘트, 모래와 자갈 등 골재는 삼표산업으로부터 조달해 그룹 내 원재료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회석 채굴과 시멘트 생산에서 레미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구축했다.

2025년 레미콘 매출액은 473억원(비중 5.8%)으로 매출 기여도는 낮지만, 시멘트의 자체 수요처를 확보하고 그룹 내 시멘트, 골재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적 의미가 있다.

시멘트 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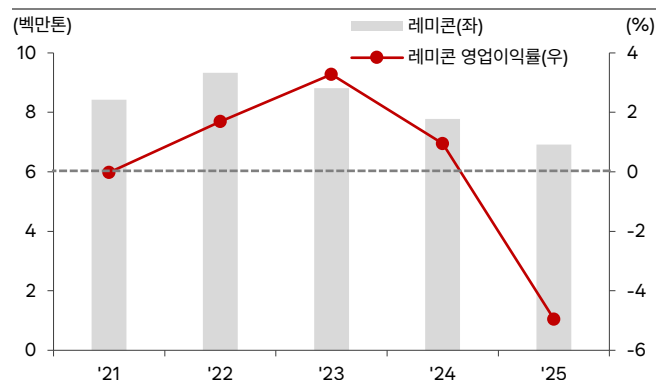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레미콘이란?



자료: 삼표그룹,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레미콘 사업부 출하량과 영업이익률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시멘트 산업의 경쟁구도 변화와 업황

시멘트사의 구분

국내 시멘트 기업은 주력 생산공장의 입지와 운송 방식에 따라 내륙사와 연안사로 구분된다. 내륙사는 충북 단양·제천과 강원 영월 등 내륙 석회석 산지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업체로, 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 등이 대표적이다. 생산된 시멘트는 철도와 BCT를 통해 수도권 및 전국 출하기지로 운송되며, 철도 운임과 유류비, 물류기지 확보 여부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달라진다.

연안사는 동해안 항만과 인접한 생산공장을 보유한 업체로, 쌍용C&E·삼표시멘트·한라시멘트 등이 해당한다. 선박을 통해 수도권과 영남권 항만으로 시멘트를 대량 운송한 뒤 BCT로 최종 수요처에 공급해 장거리 운송과 수출에 유리하다. 다만 항만과 선박 등 별도의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며, 기상 악화와 항만 운영 차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A를 거쳐 7강에서 5개 그룹 체제로

시멘트 업계는 2017년까지 약 30년간 7개사(쌍용·동양·한일·성신·한라·현대·아세아) 구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급과잉과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업체 간 경쟁은 점차 심화됐다. 2004~2010년에는 시멘트 가격을 둘러싼 출혈경쟁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시장 재편은 2015~2018년 진행됐다. 2015년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며 업계 재편이 본격화됐고, 2017년 한일시멘트는 현대시멘트를 인수하며 7개 기업집단 체제가 사실상 깨졌다. 이에 따라 시장은 쌍용C&E,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등 5개 기업 중심 과점 체제로 재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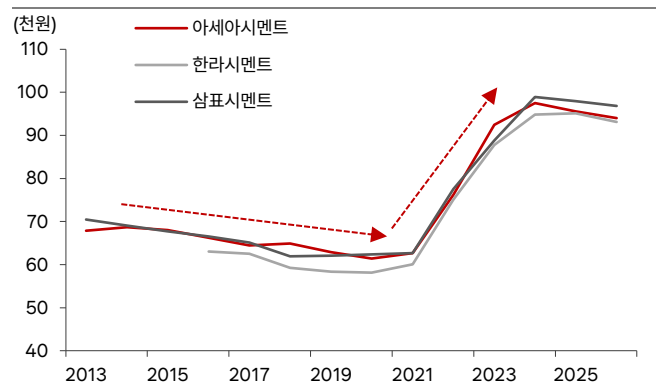
2022~2023년에는 유연탄 가격과 환율, 전력비 등 주요 제조원가가 상승하면서 시멘트 판가가 2022년 두 차례, 2023년 한 차례 인상됐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연탄 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며 2022년 업계 수익성이 압박 받았으나, 2023년부터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고 누적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시멘트기업은 연안사와 내륙사로 구분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멘트 가격 추이



자료: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체연료 확대로 수익성 제고

최근에는 원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역량이 시멘트 업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 합성수지 등을 유연탄 대신 사용하는 순환자원 연료와, 폐기물·산업부산물을 활용한 대체원료의 사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원료 및 연료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와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을 고온으로 소성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탄소집약 산업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한 생산능력보다 대체연료·대체원료 투입률, 에너지 효율, 환경설비 투자 역량 등이 시멘트 제조사의 수익성과 중장기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바닥을 다지는 건설경기, 회복은 점진적**2027년 수요 회복 전망**

시멘트는 토목·건축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기초소재로, 국내 수요는 주택을 비롯한 민간 건축경기와 정부의 SOC 투자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26년 건설경기는 장기간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착공을 중심으로 일부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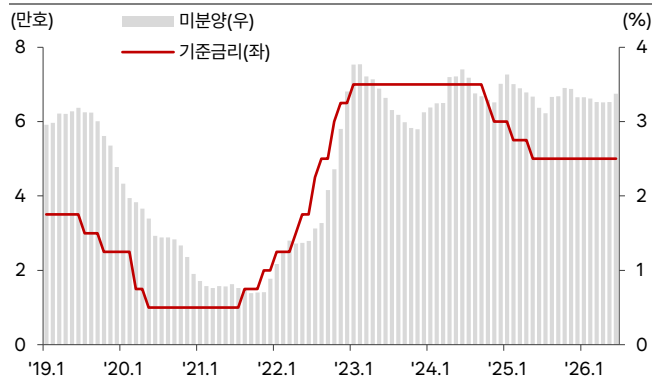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은 11.8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허가는 11.7만호로 15.8% 감소했고, 준공도 10.4만호로 49.5% 줄어 공급 단계별 지표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착공 반등은 긍정적이나 절대적인 물량 수준이 낮고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부진한 만큼,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부동산 PF 시장 경색 등이 맞물리며 빠르게 위축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0%에서 2022년 11월 3.25%까지 상승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및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사의 금융비용과 공사비 부담도 확대됐다. 사업성 저하에 따라 신규 사업의 착공 지연과 취소가 이어지면서 2025년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은 27.3만호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고, 준공 물량도 34.2만호로 17.8% 줄었다.

2026년 착공 물량의 반등은 향후 시멘트 수요의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멘트는 건축물의 기초와 골조 공정에서 주로 투입되기 때문에 착공 증가가 실제 공사 진행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시차를 두고 출하량에도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착공 물량 자체가 과거 수준에 비해 낮고 인허가 감소도 지속되고 있어, 단기 내 시멘트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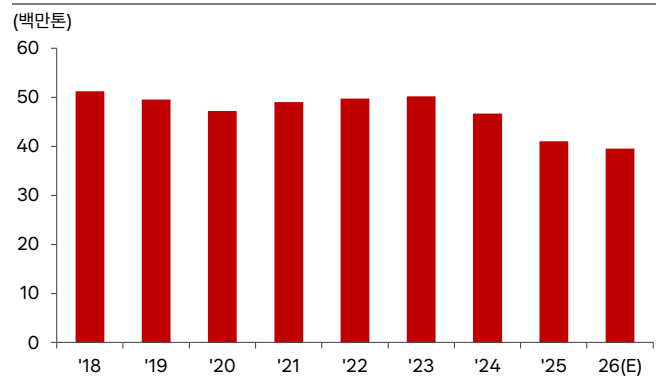
한국시멘트협회는 건설현장 가동률과 착공 부진 등을 고려해 2026년 국내 시멘트 수요를 약 3,60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시멘트 내수는 뚜렷한 회복보다는 감소 폭이 점차 완화되는 저점 구간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택 착공 증가가 실제 공사 진행으로 이어지고 공공 SOC 집행이 확대될 경우 2027년부터 점진적인 수요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회복 속도는 민간 주택경기와 부동산 PF 정상화, 정부 SOC 투자 집행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상승 이후 부동산 경기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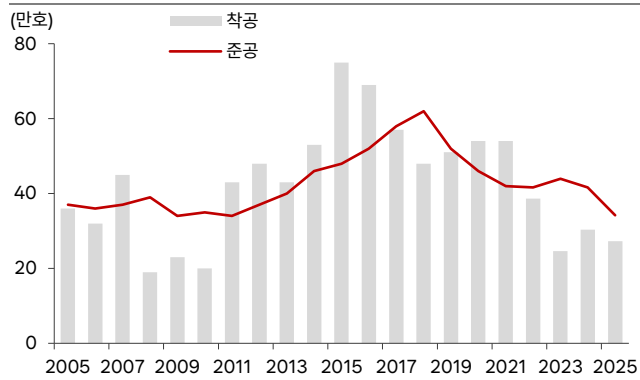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시멘트 수요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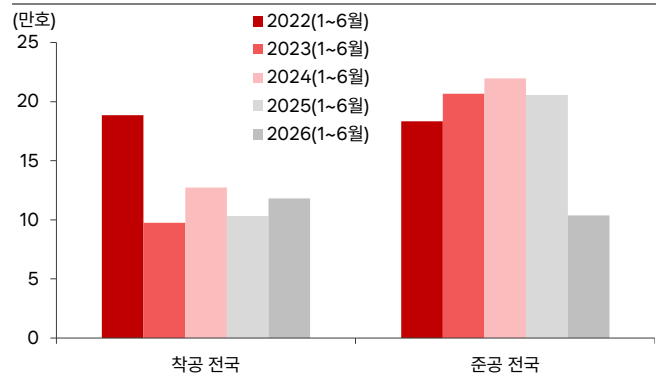
자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택 착공/준공 물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택 착공/준공 물량(1~6월 누적분)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공공투자가 이끄는 시멘트 수요 회복

SOC 주택 착공이 이끄는
수요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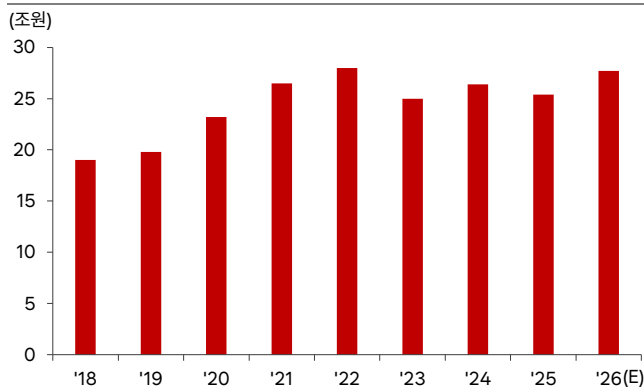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25년을 저점으로 2026~2027년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민간 건설경기의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과 높은 공사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가 강하고 SOC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수요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2026년 국가 SOC 예산은 277조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으며, 철도·도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집행 확대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약 30평형 아파트 한 가구에 시멘트 20톤이 투입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간 27만 가구는 약 540만톤의 잠재 수요로, 2025년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 약 3,810만톤의 14% 수준이다. 실제 시멘트 투입량은 주택 유형과 면적,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택 착공 확대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적인 수요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026년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을 약 3,60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약 5.5% 감소한 규모다. 착공 증가가 실제 기초·골조 공사와 시멘트 출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SOC 투자 효과가 현장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2026년에는 수요 감소 폭이 축소되고, 2027년부터는 내수 출하량의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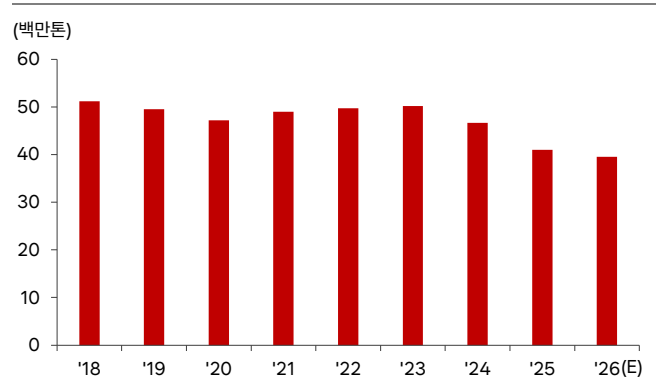
국토교통부가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 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및 규제 개선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는 여전히 변수이나,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정부의 강한 주택공급 의지가 시멘트 수요의 하방을 제한하면서 2025년보다 2026년, 2026년보다 2027년의 수요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시멘트 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아 출하량이 회복될 경우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완만한 수요 반등도 삼표시멘트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SOC 예산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멘트 수요 및 전망



자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구조적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개선

에너지 비용 낮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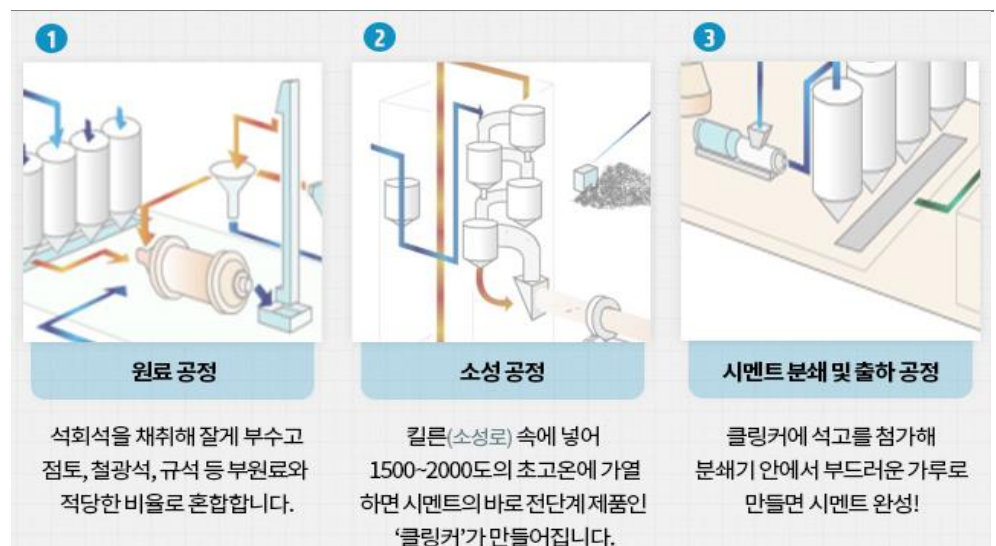
수수료 이익 확보

삼표시멘트는 대체연료·대체원료 사용 확대와 폐열발전 증설,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구조적인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시멘트는 석회석 혼합물을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해 생산하는 만큼 제조원가에서 유연탄과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대체연료 전환을 통해 에너지 투입 구조를 개선하면 톤당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업체별 순환연료 대체율의 차이는 원가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2025년 삼표시멘트의 순환연료 대체율은 42.0%로, 한라시멘트의 32.0%보다 10%p 높다. 순환연료 대체율이 높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표는 시멘트 업체의 중장기 경쟁력을 가능하는 중요한 변수로 판단한다.

연료 부문에서는 폐합성수지 등 대체연료 사용 비중을 2018년 14%에서 2025년 42%까지 확대했으며, 2030년에는 58%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체연료는 유연탄 투입량을 줄이는 동시에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확보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부가수익 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연료비는 2023년 1,323억원에서 2025년 700억원으로 47% 감소했으며, 회사는 관련 설비에 약 1,700억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연료비를 추가로 35% 절감할 계획이다.

대체원료 확대 역시 원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멘트 생산에는 석회석뿐만 아니라 규석·점토·철질 원료 등이 투입되는데, 이를 고로슬래그·석탄재·폐주물사 등 산업 부산물과 폐기물로 대체하면 천연원료 구매비와 채굴·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일부 대체원료는 원료를 무상 또는 낮은 가격에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입 과정에서 처리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어, 원료비 절감과 수수료 수익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대체원료 투입 확대를 위한 저장·선별·투입 설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생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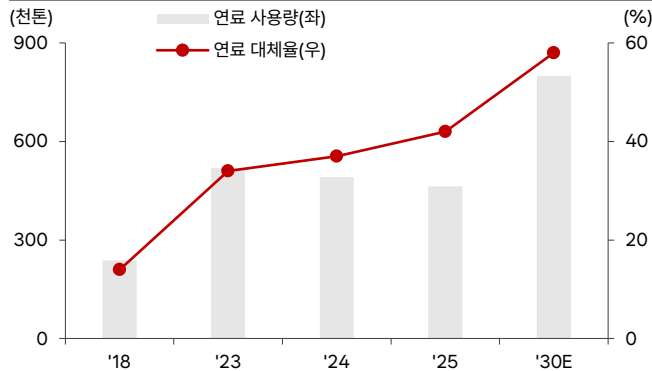


자료: 삼표그룹,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폐열발전 확대로 전력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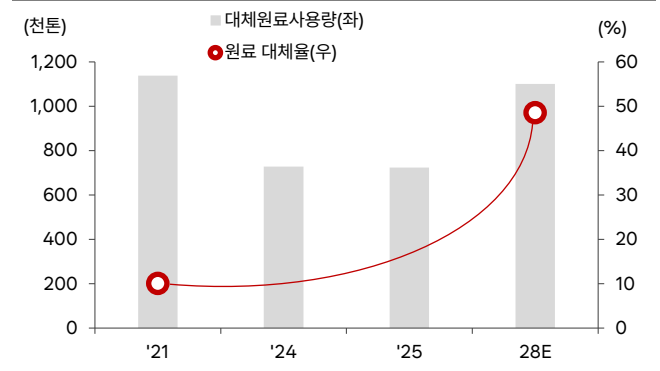
전력비는 폐열발전 확대를 통해 절감하고 있다. 폐열발전량은 2021년 2.7만MWh에서 2025년 6.5만MWh로 증가했으며, 2027년에는 10만MWh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회사는 폐열발전과 생산·구매·물류 효율화를 통해 2028년까지 전력비와 생산 관련 원가를 각각 20%, 10% 추가 절감할 계획이다. 향후 출하량이 반등할 경우 고정비 부담 완화와 톤당 변동비 하락이 맞물리며 영업이익을 개선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연간 연료 사용량 및 연료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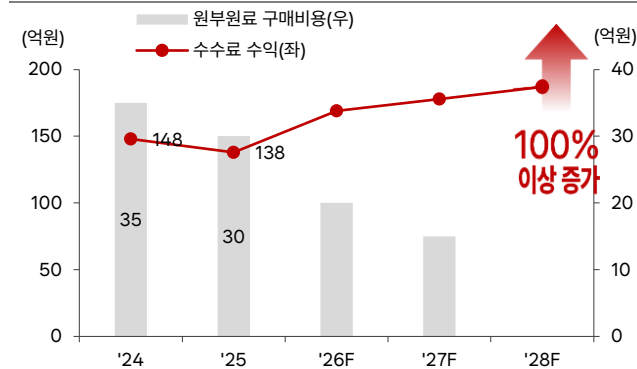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체원료 사용량 및 원료대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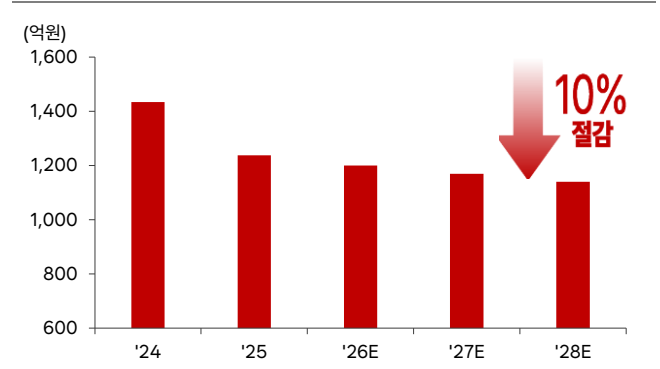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외부 원료 비용 및 수수료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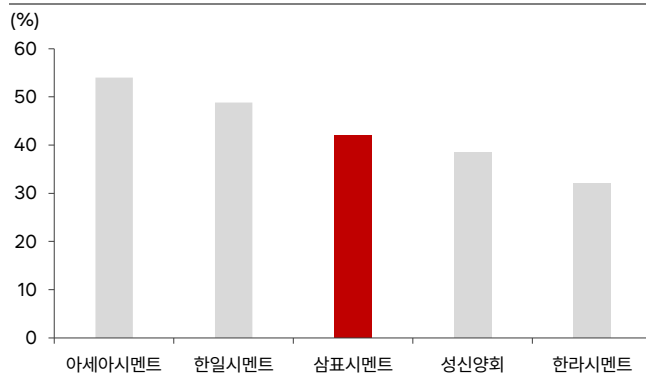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생산 원가(고정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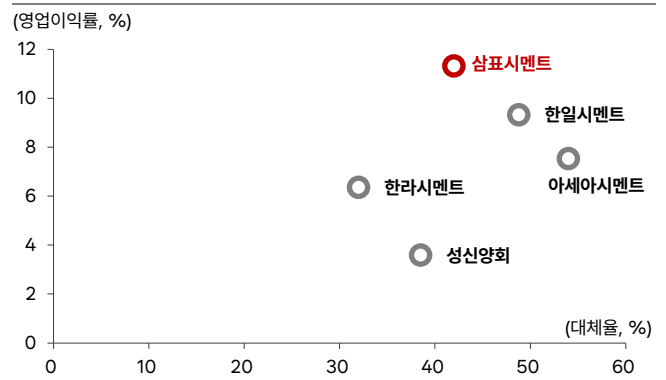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열량 기준 순환연료 대체율(2025년)



자료: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순환연료 대체율과 영업이익률(2025년)



자료: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Q26 실적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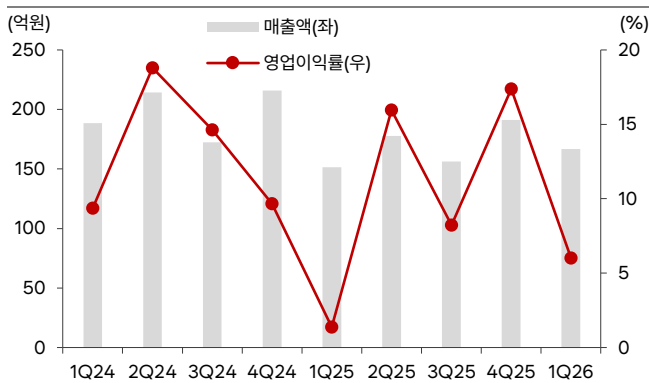
출하량 증가와 대보수 일정 분산으로 수익성 개선

1분기 매출액은 1,667억원(+10.0% YoY, 이하 YoY), 영업이익은 100억원(+375.5%)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동기 대비 4.6%p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6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시멘트 산업은 공사가 어려운 동절기와 혹서기에 출하량이 감소하고 길른 대보수도 주로 1·3분기에 진행돼 계절적 비수기가 나타나는 구조다. 이번 분기에는 전년도 업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통상 1분기에 집중됐던 대보수 작업을 1·2분기로 분산하면서 설비 가동과 생산·판매 여력이 확대되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은 포틀랜드시멘트가 톤당 9만6,832원(-1.0%), 슬래그시멘트가 8만6,239원(-1.9%)으로 하락한 반면, 출하량은 각각 11.9%, 13.0% 증가했다. 판매가격 하락을 물량 증가가 상쇄하면서 외형이 성장했으며, 판매량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이익 증가 폭은 매출 증가 폭을 크게 상회했다. 시멘트 사업부는 매출액 1,882억원, 영업이익 106억원을 기록한 반면, 레미콘 사업부는 매출액 144억원, 영업손실 7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은 시멘트 부문이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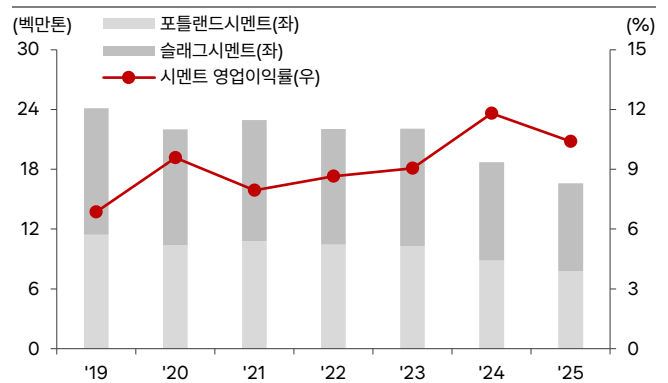
다만 1분기에 예정됐던 일부 대보수 작업이 2분기로 이연된 만큼, 2분기에는 설비 가동을 하락과 관련 비용 증가로 수익성 개선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수익성은 대보수 진행 강도와 연료 가격, 출하량 회복 지속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멘트 제품별 출하량과 영업이익률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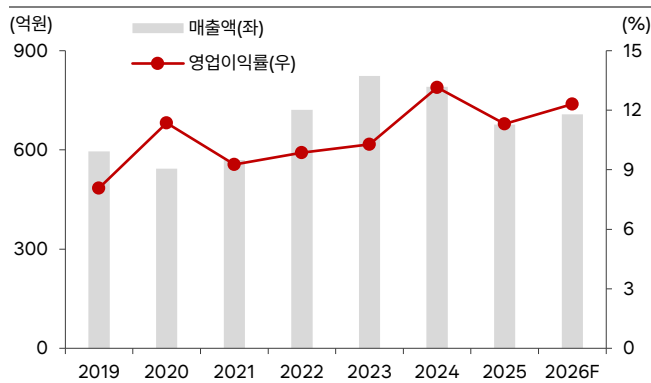
2026년 실적 전망

출하량 회복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2026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7,074억원(+4.5% YoY, 이하 YoY), 영업이익 877억원(+14.5%)을 기록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12.4%로 전년 대비 1.1%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누적 주거용 건축 착공면적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고 신규 분양 물량도 확대되면서 주택 부문의 시멘트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공업용·상업용 건축 착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출하량 회복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고정비 부담 완화, 대체연료 투입 확대 등 원가 절감 효과가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EBITDA는 1,660억원(+6.9%), EBITDA 이익률은 23.5%로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나프타·PVC 등 일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불안과 유연탄 가격 상승은 부담 요인이다. 제조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해 원가 개선 속도가 더딜 가능성도 있다.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연탄 가격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중국 친황다오항 인도 기준 5,500kcal

삼표시멘트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7,211	8,237	7,908	6,769	7,074
시멘트	8,101	9,126	8,753	7,628	7,905
레미콘	513	569	573	473	575
연결조정	-1,404	-1,457	-1,418	-1,332	-1,407
영업이익	711	847	1,039	766	877
영업이익률	9.9	10.3	13.1	11.3	12.3
당기순이익	302	338	661	408	470
당기순이익률	4.2	4.1	8.4	6.0	6.6
YoY					
매출액	26.7	14.2	-4.0	-14.4	4.5
시멘트	19.8	12.6	-4.1	-12.9	3.6
레미콘	336.6	10.8	0.8	-17.5	21.6
영업이익	35	19.1	22.7	-26.3	13.7
당기순이익	48.4	12.0	95.5	-38.3	15.1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성수동 프리미엄과 본업 수익성을 동시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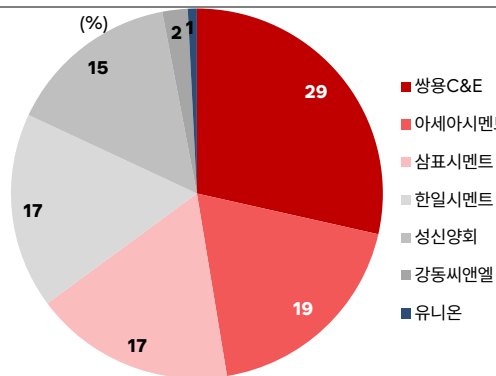
성수 프리미엄과 탄탄한 본업

삼표시멘트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 18.1배, P/B 1.0배로 한일시멘트의 15.0배·0.6배와 아세아시멘트의 8.3배·0.3배를 상회한다. 2025년에는 경쟁사 대비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았으나, 2026년 기준으로는 프리미엄이 뚜렷하게 확대됐다. 삼표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서 성수동 개발에 따른 그룹 자산가치 재평가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한다.

본업의 수익성이 경쟁사 대비 우수하다는 점은 일정 수준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뒷받침한다. 삼표시멘트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12.3%로 한일시멘트 8.2%, 아세아시멘트 7.3%를 상회하며, ROE 역시 5.9%로 비교기업 중 가장 높다. 대체연료 사용 확대와 폐열발전 등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도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요인이다. 다만 이러한 본업 경쟁력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확대된 밸류에이션 격차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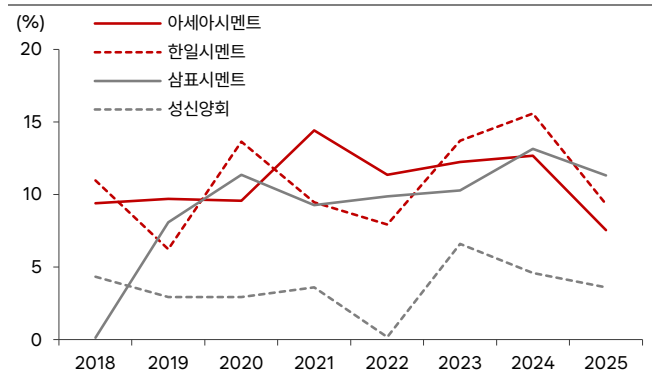
삼표시멘트는 성수동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도 없어, 부지 가치 상승이나 개발이익이 회사에 직접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P/B가 경쟁사 대비 큰 폭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에는 성수동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2025년 시멘트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추정



자료: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4사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 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쌍용 C&E는 비상장사

주요 업체 Valuation

(단위: 십억원, 배, %)

자수 및 기업명	종가 (원)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ROE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삼표시멘트	7,870	849	677	707	77	87	13.2	18.1	0.7	1.0	5.3	5.9
한일시멘트	14,230	1,047	1,424	1,395	133	115	16.9	15.0	0.7	0.6	4.1	3.8
아세아시멘트	9,190	331	1,023	1,082	77	79	26.6	8.3	0.4	0.3	1.6	3.7
성신양회	7,940	195	1,216	N/A	44	N/A	9.2	N/A	0.4	N/A	4.5	N/A
강동씨앤엘	1,100	67	72	N/A	7	N/A	101.1	N/A	0.5	N/A	0.5	N/A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개발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

규제·사업조건 변화에 따른 주가 변동성

삼표시멘트 주가는 2025년 말 이후 성수동 부지 개발 기대가 부각되며 2023~2025년 평균 주가 대비 최대 6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현재 2026년 기준 P/B도 약 1.0배로 한일시멘트 0.6배, 아세아시멘트 0.3배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삼표시멘트가 삼표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라는 점에서 성수동 개발에 따른 그룹 자산가치 재평가의 사실상 유일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된 영향이 크다.

다만 삼표시멘트는 성수동 부지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도 없어, 개발이익이 실적이나 순자산가치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현재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본업의 펀더멘털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상당 부분 성수동 개발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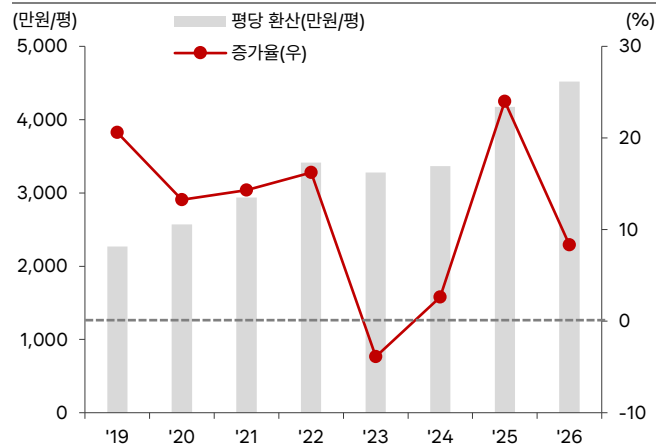
해당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에 인접하고 성수전략정비구역과 맞닿아 있어 개발 완료 시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고시상 개발 대상 면적은 2만8,106㎡이며, 최고 81층 규모로 2027년 초 착공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미 개발 기대가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향후 사업 일정 지연이나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 조건 변화, 공사비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 작은 부정적 뉴스에도 프리미엄이 축소되며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수 프로젝트 부지



자료: 삼표시멘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삼표 개발부지 개발공시지가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1월 기준

사업 추진 현황

사점	주요 내용
2022.12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2023.05~10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진행
2024.08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 선정
2025.02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사업 사전협상 완료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제안서 접수
2025.09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2025.11	제 19 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2026.02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2026.04 기준	건축 인허가 절차 진행 중
2027 년 초 목표	토지 정화와 건축심의인허가를 거쳐 복합개발 착공 예정

자료: 언론종합, 삼표시멘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승계 관련 사법 리스크

오너 사법리스크에 따른 투자심리 영향

정도원 회장은 아들 정대현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그룹 승계 기반을 강화해 왔으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승계 작업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원재료인 분체를 비계열사 대비 높은 가격에 구매해 약 7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6년 4월 시작된 형사재판은 7월까지 네 차례 진행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로, 현재까지 삼표시멘트에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과 승계 목적의 계열사 지원 여부가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법률·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하고, 계열사 간 원재료 조달 및 물류 거래 조건이나 향후 지배구조 개편 방식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삼표시멘트 역시 정도원 회장과 정대현 수석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삼표산업이 최대주주인 상장사라는 점에서, 오너 사법 리스크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는 직접적인 실적 훼손보다는 지배구조 신뢰도 저하와 소수주주 권익 훼손 우려를 통해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7,211	8,237	7,908	6,769	7,074
증가율(%)	26.7	14.2	-4.0	-14.4	4.5
매출원가	5,946	6,717	6,216	5,466	5,636
매출원가율(%)	82.5	81.5	78.6	80.8	79.7
매출총이익	1,265	1,520	1,692	1,304	1,438
매출이익률(%)	17.5	18.5	21.4	19.3	20.3
판매관리비	554	673	653	538	562
판매관리비율(%)	7.7	8.2	8.3	7.9	7.9
EBITDA	1,385	1,567	1,798	1,553	1,660
EBITDA 이익률(%)	19.2	19.0	22.7	22.9	23.5
증가율(%)	19.9	13.1	14.7	-13.6	6.9
영업이익	711	847	1,039	766	877
영업이익률(%)	9.9	10.3	13.1	11.3	12.4
증가율(%)	35.0	19.1	22.7	-26.3	14.5
영업외손익	-333	-396	-378	-258	-244
금융수익	65	52	42	31	29
금융비용	306	331	316	253	237
기타영업외손익	-92	-118	-103	-36	-36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378	451	662	508	633
증가율(%)	72.8	19.2	46.8	-23.2	24.5
법인세비용	76	113	1	100	163
계속사업이익	302	338	661	408	47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02	338	661	408	470
당기순이익률(%)	4.2	4.1	8.4	6.0	6.6
증가율(%)	48.4	12.0	95.5	-38.3	15.1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302	338	661	408	470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09	1,202	1,261	939	876
당기순이익	302	338	661	408	470
유형자산 상각비	655	704	744	773	769
무형자산 상각비	19	16	14	14	14
외환손익	10	4	7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72	-35	-309	-374	-381
기타	195	175	144	118	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12	-331	-400	-491	-46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14	6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7	1	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53	-403	-454	-453	-460
기타	41	51	47	-40	-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31	-552	-671	-633	-310
차입금의 증가(감소)	-429	-312	-744	-332	-180
사채의증가(감소)	399	0	349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81	-97	-107	-118	-130
기타	-120	-143	-169	-183	0
기타현금흐름	-0	0	1	0	-4
현금의증가(감소)	166	319	191	-186	98
기초현금	332	498	817	1,009	823
기말현금	498	817	1,009	823	921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834	3,182	3,179	3,129	3,490
현금성자산	498	817	1,009	823	920
단기투자자산	18	0	6	100	105
매출채권	950	1,269	1,149	1,171	1,360
재고자산	1,199	954	856	829	873
기타유동자산	169	141	159	205	231
비유동자산	11,693	12,023	11,672	11,338	11,015
유형자산	9,108	9,168	8,861	8,418	8,108
무형자산	2,187	2,387	2,431	2,477	2,463
투자자산	43	28	28	28	28
기타비유동자산	355	440	352	415	416
자산총계	14,528	15,205	14,851	14,467	14,505
유동부채	2,902	4,057	3,113	3,436	3,560
단기차입금	280	636	503	479	429
매입채무	450	481	406	337	283
기타유동부채	2,172	2,940	2,204	2,620	2,848
비유동부채	4,751	4,088	4,176	3,169	2,755
사채	899	400	350	0	0
장기차입금	2,743	2,196	2,506	2,058	1,758
기타비유동부채	1,109	1,492	1,320	1,111	997
부채총계	7,653	8,145	7,289	6,605	6,315
자배주주지분	6,874	7,059	7,561	7,861	8,190
자본금	540	540	540	540	540
자본잉여금	2,259	2,259	2,259	2,259	2,259
자본조정 등	-2	-2	-2	-2	-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2	-2	-1	-2	-2
이익잉여금	4,099	4,264	4,765	5,067	5,395
자본총계	6,875	7,060	7,562	7,863	8,191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2.0	10.0	4.8	13.2	18.1
P/B(배)	0.5	0.5	0.4	0.7	1.0
P/S(배)	0.5	0.4	0.4	0.8	1.2
EV/EBITDA(배)	6.5	5.5	4.3	6.1	7.4
배당수익률(%)	2.7	3.2	3.7	2.4	1.7
EPS(원)	280	313	613	378	435
BPS(원)	6,369	6,541	7,006	7,285	7,589
SPS(원)	6,682	7,633	7,328	6,273	6,555
DPS(원)	90	100	110	121	132
수익성(%)					
ROE	4.5	4.9	9.0	5.3	5.9
ROA	2.1	2.3	4.4	2.8	3.2
ROIC	4.7	4.6	9.3	5.2	5.5
안정성(%)					
유동비율	97.7	78.4	102.1	91.1	98.0
부채비율	111.3	115.4	96.4	84.0	77.1
순차입금비율	77.8	73.3	59.2	52.1	46.6
이자보상배율	3.0	2.9	3.6	3.1	3.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6	0.5	0.5	0.5
매출채권회전율	7.6	7.4	6.5	5.8	5.6
재고자산회전율	7.2	7.7	8.7	8.0	8.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삼표시멘트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8.07	삼표시멘트-본업 회복에 성수동 프리미엄을 더하다
2023.03.06	삼표시멘트-판가와 원가에 집중할 때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